

주간 이슈 리포트

5호

2003년 8월 둘째주

◎ 주요내용

- 세상돋보기:	정몽헌회장의 죽음
- 노동자 세상:	현대차 노동자 임금
- 통신정책 이모저모:	하나로통신의 운명
- 정자동 6층에서:	94%의 의미
- 휴게실	시사 만화



KT노동조합 정책기획실



“정몽헌 회장의 죽음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의 대표적인 재벌 회장이며 삼성과 함께 한국 재계를 이끌던 현대의 정몽헌 회장이 명확한 이유를 알 수 없이 죽었다. 지난 주에는 내내 이 사람의 죽음이 화제였다. 이 죽음을 두고 자살이니, 혹은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니 그 의미의 논쟁부터 죽음의 의미와 원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

처음에는 돈도 명예도 무슨 소용이 있는가? 대한민국의 내노라하는 재벌도 자살을 한 것이 놀랍기만 했으며, 죽음 앞에 인생무상함을 느꼈는데, 죽음 의미에 대해 극단적인 논쟁이 왕왕하니, KT 노동자도 그 논쟁의 한 자리를 끼여 그의 죽음의 의미를 새롭게 바라보고, 이왕 내친 김에 향후 통일의미도 더듬어 보는 것도 의미 있다고 본다.

1. 그의 죽음에 대한 여러 시각

- 1) 한나라당이나 조선일보의 편집국장인 조갑제의 “이 죽음의 배후는 김정일과 김대중이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는 고인의 유서에 지속적인 대북사업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으며, 또한 유분을 금강산에 뿌려 달라고 할 정도로 대북사업에 애착을 갖고 있는 뜻을 도외시하고,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주술같이 외우는 책임없는 지껄이일 뿐이다.

2) ‘특검 수용이 정회장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반통일, 반북 세력들이 특검을 요청하여 특검수사로 인해 정회장이 심적 압력을 받아 죽었다는 것으로 우리 사회의 보수세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기도 하는 주장이지만, 과연 특검 수사 자체만으로 심적 압력과 자살의 원인이 될까?하는 의문도 많다.

3) ‘자본가의 죽음에 지나치게 난리다’는 시각에 대하여

최근 수많은 자살이 있었다. 언론에서는 한 대학 강사가 목메달 죽었을 때 그의 심약함을 지적하였고, 카드 빚에 몰리다가 어린 3자녀를 아파트에서 아이와 함께 죽은 여인에 대해서는 비정함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화물차량 보증 빚에 자살한 화물노동자의 죽음에 대해서 언론은 관심조차 보이지 않더니 재벌 회장의 죽음에 지나치게 난리라는 시각이다. 문맥 상으로 하자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분단된 이땅, 남한에서 정몽헌이라는 사람을 통해 만들어진 남북관계, 경제 활동, 정치적 상황 등의 현실을 지나치게 무시하려는 시각으로 보인다.

4) 엄청난 투자를 해온 남북 사업의 전망이 어둡고 , 한편으로는 현대 건설과 상선 등 기업 경영난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죽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남북 사업은 북핵 문제와 특검 등으로 극절을 겪었지만, 최근에는 6자회담 제의로 북한 핵문제가 풀려가고 있으며, 특검 수사연기 요청도 노대통령이 거부한 상태이기에 남북 사업의 전망은 도리어 최근에 희망적인 양상을 띠고 있었다.

그리고 기업의 재정난은 현대의 주요기업들이 어렵지만 아직 죽음으로 이어질 정도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 죽음을 있는 그 자체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정몽헌 회장의 죽음의 배경에 대하여 설이 분분하다. 모두 아전인수식으로 자신의 시각에서 해석하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은 현재로서는 알기 힘들고 또한 평범한 사람으로서 재벌 회장의 죽음을 추측하기조차 힘들다. 일단 해외의 사례를 보면 많은 기업인들이 재판을 앞두고 심리적 압박으로 자살한 경우는 많다고 한다.

다만 그의 죽음이 현재로서는 남북협력과 특검 등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기에 그의 죽음은 분명 한반도 안팎의 정치경제 질서의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 것임은 추측할 수 있다.

특히 유분을 금강산에 뿌려달라는 남북협력 사업의 기대, 그리고 남북협력을 지속시켜 달라는 유언은 분명 거짓이 아닌 진실일 것이다.

그렇다. 그는 이유야 어찌하여든 죽음을 선택하였다.

지금은 그의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남북협력과 통일의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서로에 대한 증오와 감정만을 일으키는 죽음의 의미와 배경 논쟁은 그만 중단하자.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로 다가올 한반도의 통일의 과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마침 오는 8월 15일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이다.

8월 15일을 전후하여 민주노총의 통일 선봉대가 전국을 순회하며, 통일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열치열이라고 했던가?

더운 열기를 통일의 열기로 이겨내고,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앞당기기위해 통일 선봉대와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관심을 갖고 박수를 보내며, 가능하다면 전국 지역에서 전개될 8월 15일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현대자동차 노동자 6,000만원 임금과

166일 휴일의 진실

KT 노조의 2003년 단체교섭 마무리와 거의 같은 시기에 현대자동차의 임단협도 마무리되었다. 때로는 이를 비교하는 사람도 있는데, 각기 사업장의 현실과 조건, 노동조합의 현실 등이 분명 다르기에 투쟁을 했느냐, 안했느냐 혹은 몇 % 인상이냐의 단순 비교는 의미가 없다. 특히 언론에서 1,000만원이 인상되었느니. 고졸 15년차 생산직이 연휴일 166일에 연봉 6,000만원을 받게 되었다고 선전해대니, 우리 스스로와 노동조합에 대해 실망하기도 하는데, 이는 실제와 다른, 재벌과 보수언론의 거짓선동이다.

금번 노동자 세상에는 현대 자동차 노동자의 임금을 둘러싼 진실을 살펴보기로 하자.

1. 정말로 1,000만원 인상되었나?

기본급이 9만 8천원 정액으로 인상되었는데, 이를 1년으로 계산하면 117만 6천원(9만 8천원 x 12개월)에 상여금은 통상임금의 700%이기에 약 80여만원 , 여기에 초과근무수당 인상 분, 명절 특별 상여금을 더 해도 실제로는 400만원이 안 된다.

1,000만원의 주장은 작년에도 지급된 바 있는 500, 600만원의 성과금을 합하여 과장, 왜곡하고 있다.

13년차 생산직 노동자의 연봉은 휴일을 모두 사용하고, 잔업, 특근을 하지 않는다면 약 3,500만원쯤 된다.

정부에서는 우리나라가 1인당 1만달러 소득이 되며, 향후 2만달러 소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보통 가정이 평균 4인 가족이기에 가장이 자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평균 4만 달러(= 4,800만원)를 벌어야 하는데, 이에 못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두고 호들갑을 떠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다.

특히 언론에 ‘공업고등학교 나온 주재 1천만원이 더 인상되어 6천만원을 받는다’는 식

에 대해서는 분노까지 치밀어 오른다.

초등학교 밖에 나오지 않은 기업가나 장사, 사업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버는 것, 그리고 고등학교 밖에 나오지 않은 프로스포츠 선수가 억대의 연봉을 받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2. 현대자동차 노동자는 주 5일제 시행으로 166일의 휴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나?

▷ 언론에서 프랑스는 148일, 일본은 139일, 대만의 130일 휴가를 제시하며, 이보다 많은 현대자동차의 166일은 휴일 왕국(매일경제)이라고 사설에서 주장하고 있다.

언론이 주장하는 휴일 166일의 마술을 분석해보자.

1) 언론의 주장

- ① 주 5일제 근무로 인해 토,일요일 휴무 = 104일
- ② 법정 공휴일 17일
- ③ 월차 12일
- ④ 연차(평균 12년 근속) = 21일
- ⑤ 신정, 추석, 하기 휴가 등 약정 휴가 11일
- ⑥ 여성 생리휴가 12일

합계 = 남성 165일(여성 177일)

2) 언론 주장의 문제점

- ① 법정 공휴일 17일 중 토,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최소 5일 이상.
- ② 법정 공휴일 중 설날, 추석 포함되어 있음.
- ③ 여성의 경우 결혼 등으로 근속년수가 대체로 짧음. 그리고 생리휴가가 법에 보장되어 있지만 현장 분위기상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④ 연차가 21일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한국의 평균 사용일은 7일 내외. 대체로 연말에 연차 수당을 받아 임금 보존의 수단임.
- ⑤ 토요일 4시간이 단축되어 204시간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을 52일 휴일이 늘어 난다고 하는 것이 큰 함정이다. 정확한 표현은 토요일은 반휴일(KT의 경우 반차

휴가) 이다. 정확한 휴무일은 평일(1일 = 8시간)에 휴무해야 그것이 휴일인 것이다. 실제 토요일 휴무는 26일의 휴일로 계산하여야 한다.

3) 실제 휴일 일수는?

① 아파트의 경비 아저씨는 추석이나 여름 휴가와 상관없이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이 경우 경비 아저씨의 경우 1년에 약 4400시간을 근무하는데, 휴일은 183일인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휴일을 사용하고 있는 노동자인가? 실 노동시간과 상관없는 이런 식의 휴일 왕국 주장은 터 무니 없다.

② 실제 휴일은 8시간 = 1일로 계산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노동시간 단축 개념은 1년에 2000시간 이내의 노동을 하자는 개념에서 출발하여 주 5일제 근무를 이야기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년 총 노동시간을 1일 = 8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근무 일이고, 나머지가 휴일 인 것이다.

③ 휴일 계산법 = 365일 - (년간 총 노동시간 ÷ 8시간)

④ 실제 현대자동차 노동자의 평균 휴일 수는 34일.

평균 년간 노동시간 2650 ÷ 8시간 = 331일이며, 365일에서 331일을 빼면 실제로는 약 34일의 휴일.휴가일수이다.

3. 현대 자동차 노동자 임금의 실제와 공무원 임금과의 비교

<공무원 7급(18호봉)19년차 임금 >

기 본 금 :1,396,000 x 12월=16,752,000

기 말수당 : 기본급 x 70% x 4회=3,908,800원(매분기별자급)

정 근 수 당:기본급 x 100% x 2회=2,792,000원(상하반기)

급 식 비 :80,000(매월) x 12월=960,000원

직급 보조비:120,000 x 12월=1,440,000원(7급)

교 통 비 :100,000 x 12월=1,200,000원

연가 보상비:기본급 x 20/24=1,163,333원

가계 지원비:기본급 x 250%=3,490,000원

명절 휴가비:기본급50% x 2회=1,396,000(추석.설)

업 무 수 당:기본급10% x 12월=1,632,000원

가 족 수 당:20,000 x 2 x 12월=480,000원

연 봉 : 35,214,133원

<현대차 생산직 노동자 19년차 >: 2002년 임금 기준.

기 본 급 :5,322원(기본급 시급) x 8시간 x 30일 x 12월=15,327,360원

상 여 급 :6,017.8원(통상임금 시급) x 8 x 30 x 700%=10,109,960원

복 지 수 당:15,000원 x 12월=180,000원

근 속 수 당:90,000원 x 12월=1,080,000원

생산성향상수당:20,000 x 12월=240,000원

가 족 수 당:41,000 x 12월=492,000원

조 정 수 당:2,000 x 12월=24,000원

통 합 수 당:10,000 x 12월=120,000원

단체개인연금:20,000 x12월=240,000원

목표달성장려금:50,000 x 12=600,000원

하계 휴가비:300,000

명절 귀향비:150,000 x 2회=300,000(추석.설)

연 봉 : 29,013,320원

지난 주 노동계 주요 이슈

■ 조흥은행 노조, 새 은행장 임명 반발 투쟁

지난 6월 조흥은행 파업 당시 조흥은행의 독립법인 유지기간에는 조흥은행 출신을 행장으로 선출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신한지주회사는 98년 계약직 임원으로 불과 3년 동안 근무한 적이 있는 최동수씨를 새 은행장으로 인명하자. 노동조합이 조흥은행 인물로 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6월 당시 노조 투쟁에 어쩔 수 없이 합의해준 내용을 교묘하게 어기면서 노동조합의 무리한 투쟁을 유도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집행부를 구속시키겠다는 숨긴 의도가 있는 것이다. 도대체 진지한 노사합의 이행은 이사회에서 기대할 수 없는 것일까?

■ 산자부, '사용자 대항권 강화' 망발

산업자원부가 6일 "정리해고 요건완화,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범위 확대, 쟁의행위 요건 강화 등 노조 파업에 맞서 사용자들의 대항권을 강화하겠다"고 망발을 하였고,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반민주적이고 반노동자적인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은 줄줄이 구속되는 데도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악덕사용주들이 단 한사람도 구속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강력한 투쟁을 경고했다.

다음 주 노동계 주요 이슈

■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

2003년 8월 11일(월) 오후 2시 목동 방송회관 강당에서 주5일제를 빌미로 한 근기법 개악 분쇄 투쟁 관련한 결의대회가 예정되어 있다.



하나로 통신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지난 8월 5일 하나로 통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주 총회가 있었다. 하나로 통신은 KT와 같은 유선시장의 강력한 경쟁상대로써 하나로 통신의 향방은 곧 바로 KT의 매출 등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기에, KT 노동조합 간부라면 경쟁업체의 동향에 대해 주의 깊은 이해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에 8월 5일 주총의 결정과 배경, 그리고 향후 하나로통신의 방향을 예측해 보기로 한다.

1. 8월 5일 하나로 주주총회의 의미와 결과

- 1) 주요 안건
 - LG 그룹이 하나로 통신 경영권 획득을 위해 5,000억원 유상증자안 제출
 - 윤창번 사장 선임건
- 2) 결과
 - 최대 주주인 LG 그룹(15.92%)이 제출한 5,000억원 유상 증자안은 2대 주주인 삼성전자(8.49%)와 3대 주주인 SK텔레콤(5.5%), 하나로 통신의 우리사주 대부분의 반대로 부결됨.
 - 윤창번 사장(전 KT 사외이사, 감사) 선임.
- 3) 왜 부결 되었는가?
 -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의 표면적 반대 이유는 지난 6월 하나로통신이 추진하던

외자유치를 증자안보다 제안 액수가 낮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로 통신이 LG 그룹으로 편재되는 것을 반대한 것이 주요 이유이다. SK텔레콤의 경우 하나로통신이 LG그룹에 편재되어 통신 3강이 될 경우, LG 그룹이 유무선 통신 업체 (LG텔레콤, 데이콤, 파워콤, 하나로통신)를 모두 소유하는데 비해 SK텔레콤은 유선시장이 전무하기에 향후 경쟁에서 부담스러운 것이 작용한 듯하다.

그리고 삼성 전자의 경우 LG가 유무선 통신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경우 LG 전자와 한편 경쟁을 하여야 하기에 부담을 가진 것으로 추측한다. 여기에 삼성전자의 경우 향후 통신사업 진출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LG에 하나로가 편재되기보다는 일단 독자 운영이 더 희망적일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SK텔레콤의 경우도 하나로 통신을 소유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무선의 지배사업자라는 것에 대한 여론과 유무선 통신 사업을 제한하는 통신사업법 등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향후를 대비하여 LG그룹 편재보다는 독자 생존이 더 희망적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 한편 하나로통신 노조와 우리사주 조합도 반대를 하였는데, 이는 LG그룹이 현금 투자를 하기보다는 우선 증자를 통해 경영권을 장악하여 빚을 내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기에 부실 경영 우려가 있기때문이다. 실제 데이콤의 경우 흑자 경영에서 LG 그룹 편재 후 부의 유출과 투자 회피로 인해 적자에서 허덕이고 있다.

2. 하나로 통신의 미래

1) 지배구조

하나로 통신의 운명은 현재로는 어쩔 수 없는 독자 생존이지만, 많은 변수를 포함하고 있다. SK텔레콤 등은 결렬되었던 외자 유치를 다시 추진할 의지가 있지만, 과연 이를 부결시켰던 1대 주주인 LG가 이를 인정할 것이냐의 여부가 관건이다.

이에 대해 윤창번 신임 사장은 하나로의 지배구조가 지금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즉 어느 대주주도 자신의 뜻대로 하지못하고 상호 견제하기에 안정적인 지배구조가 될 수 있으며, 따라서 KT 지배구조를 벤치마케팅 하여 전문경영인체제로 가겠다고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당장의 필요한 현금 유동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2) 두루넷 인수

두루넷이 8월 25일 입찰을 예정하고 있으며, 두루넷 인수를 위해 하나로 통신과 데이콤이 의향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두루넷이 LG의 뜻대로 되었다면 두루넷은 하나로와 데이콤이 연합하여 LG그룹에 편입되었을텐데, 상황이 바뀌어 이제는 LG(데이콤)그

롭과 하나로통신이 경쟁하여야 한다. 하지만 두 업체 모두 운영자금에 허덕이고 있기에 쉽지 않다. 하나로통신의 경우 주요 대주주와 의논하여 3,000억원의 CP(기업어음)을 발행하겠다고 하지만 과연 불편한 관계인 대주주의 의견 일치가 가능할 지 두고 볼 일이다.

3. KT와의 관련

하나로 통신은 주요 사업과 통신정책에서 KT와 깊은 연관이 있다.

초고속 인터넷에서 KT에 이은 제2의 사업자이며, 하나로 통신 등 후발 사업자의 요구에 의해 번호이동성, 가입자망 공동 활용제 등이 실시되고 있다. 또한 LM 시장의 개방 등으로 KT 매출에 향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2.3GHz 휴대인터넷 사업권이 하나로와 KT 등 유선 사업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KT에게 유리한 상황이다.

한편 과거에는 주요 영역에서 불필요한 경쟁으로 비용 증가의 어려움을 겪었는데, 향후에는 KT를 매우 잘 알고 있는 윤창번 사장(KT 사외이사, 감사 출신)이 새로 임명되었기에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고 상호 공존할 수 있을 지, 아니면 KT에게 위협이 될 수 있을 지 향후가 주목된다.♫

정자동



6층에서

94%의 의미

2003년 단체교섭 가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 결과가 94%의 놀라운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이는 역대 가합의안 찬반 투표이래 최대의 찬성률이다.

94% 찬성의 의미는 무엇일까?

일부가 이야기 하듯 사측의 지배개입에 의한 것일까? 아니면 투표를 조작인가? 집행부를 반대하는 일부 세력은 아직도 근거없는 이야기를 주술사가 주문을 외우듯이 주절거리고 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자기 모순의 주문일 뿐이다.

실제로 사측은 94%와 같은 높은 찬성률을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너무나 높은 찬성률은 조합원들이 가합정안에 대해 만족하는 것이고, 결국 사측에서 불필요하게 너무나 많은 양보를 한 결과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사측이 지배개입을 했으면 적당히 50 ~ 60% 수준의 찬성률을 만들어 냈을 것이다.

또한 만약 실수로 찬성률이 높아졌다면 지방본부별로 찬성률의 차이가 커야함에도 불구하고 전국 지방본부 모두가 90%이상의 고른 찬성률을 나타내고 있다.

다시말해 사측의 지배개입은 터럭만큼의 진실성도 갖고 있지 않은 이야기일뿐이다.

조 합 사이트에 보니까 일부 지부장의 조작설도 이야기하고 있다.
조작설?

조작이라는 무리를 쓸 경우 이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지부단위에서 찬성률의 높고 낮음 때문에 오는 큰 불이익이 있는가?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다. 더욱이 금번 선거는 지부 편제와 상관없이 건물별로 투개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가? 투개표 조작이 가능하지도, 또한 필요성도 없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94%의 찬성률은 조합원의 순수한 뜻이다.
조합원들은 무슨 생각으로 찬성을 하였을까?

정말 만족하였기 때문일까?
만족보다는 불만스럽지 않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입 금부문은 만족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동결에 비한다면 불만은 아닐 것이며, 장학금
관련 사항은 매우 만족을 하는 듯하다.

그리고 단체협약은 현행 유지 수준이기에 대체로 납득하는 수준이다. 그리고 인사보수규정
관련 분야는 아직 조합원들이 이와 관련한 피해가 없기에 직접적인 느낌이 없을 것이다. 다
만 법적 다툼을 하고 있으니 기다려볼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인 것 같다.

하지만 94%의 찬성에는 적극적인 지지와 찬성보다는 웬지 다른 요구가 담겨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것이 무엇일까?
2003년 단체교섭을 앞두고 조합원 설문 조사할 때 조합원의 가장 큰 관심사는 고용안정이
었다.

그렇다.
조합원들의 최대 요구와 관심사는 고용안정인 것이다.
조합원들은 고용 불안이 아니라면 웬만한 사항은 크게 문제 삼지 않을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측이 교섭 과정에서 고용안정 약속을 누누히 강조 하였으니, 고용안정이 이루어 지는 상
태에서 더해지는 기본급 2% 인상, ESOP2%지급, 장학금 지급 등등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
다는 것이다.

다 시말해 94% 찬성의 의미는 뒤집어 보면 고용안정에 대한 강력한 요구이며, 명령인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고용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사측은 인력 조정을 경영진의 필요에 의해 좌지우지 하고 싶은 것이 기본이다. 매출 대비
인건비 운운하지만, 한마디로 직원 숫자를 축소하고 싶다는 말 아닌가?
다행히 현 경영진은 고용안정을 수없이 약속하고 있다. 이는 인력축소의 폐해에 대한 문제
의식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노동조합의 반발이 예상되기에 무리하게 인력조정을 하지 않겠다
는 것이다.

하지만 주어진 현실은 그리 녹녹하지 않다. 통신 시장의 확대가 멈추어 있고, KT 매출도 크게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조합원의 94% 찬성의 요구인 고용안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은 노동조합의 흔들림없는 안정과 강화이다. 집행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고, 일상적인 선전 강화를 통해 노동조합을 이해 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노동조합 간부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경영 참가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 역량 개발도 필요할 것이다.

결국 95% 찬성의 의미는 더욱 더 분발하라는 조합원의 질책인 것이다. ♪

휴

계

실

